

요나 1:1-17 “다시스로 가는 배” 2026.6.21 주일 설교 목상

[인트로]

인생에 큰 풍량이 닥치면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생각과 믿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있던 것이 그때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1 장에 등장하는 배 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편에는 살기 위해 각자의 신을 부르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선장과 선원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운데 배 밑에서 잠들어 있는 요나가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선장과 선원들이 더 경건해 보이고, 더 열심히 신앙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요나는 무책임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모습을 의도적으로 나란히 세워 놓고 우리에게 환난과 위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으로 자신을 설명하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를 묻습니다.

나는 내가 능력이 있고, 위기에 빠르게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실은 관건은 내가 누구 앞에 있으며,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잠 속에서나마 풍량이 올 것을 예견하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을 수 없었던 요나와,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눔]

아래 설교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세요.

11. 지난 주에 우리는, 요나에 대해 말하기를, 그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실패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이고, 또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땅위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였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그가, 소위 빛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17. 요나가 그 풍량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는 그것을 예견하고 있었지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하는데, 하나님은 분명 자기를 찾으실 것이고, 자기를 찾으시되, 반드시 되찾으시기 위해서 풍량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26.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의 학력과 출신과 능력과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열쇠는 우리가 누구이며, 또 어떤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달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원들은 풍량을 예상하지 못한 재앙으로 받아들였지만, 요나는 그 풍량이 자신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며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납니다. 물론 모든 고난을 확실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설교는 고난과 실패, 질병이나 관계의 문제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고난 중에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